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은 유럽지역(영국 포함)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모투자신탁은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Eastspring Investments 의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Eastspring Investments - Pan European Fund (이하 " 피투자 펀드 ")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피투자 펀드인 Eastspring Investments - Pan European Fund는 유럽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 증권 가운데 가격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핵심 종목에 대한 투자를 통해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전략을 실시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7억 원

-유러피언리더스증권모[주식-재간접형] 20억 원

펀드유형 주식-재간접형, 모자형, 종류형
-모투자신탁 편입비 : 100% 이하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 편입비 : 100% 이하

설정일

(운용펀드 : 2007년 02월 15일)

- 클래스 A : 2007년 02월 15일
- 클래스 A-E : 2014년 06월 12일
- 클래스 C : 2007년 02월 23일
- 클래스 C-E : 2017년 08월 03일
- 클래스 C5 : 2011년 02월 28일
- 클래스 S : 2014년 04월 23일

벤치마크 MSCI Europe Index 95% + Call 5%

신탁업자 HSBC(수탁사)

월 증 환헤지 비중 89.1%

선물 또는 선도 계약의 평가액(KRW) / 외화 자산의 평가액(KRW)

환매대금 지급일

| 구분 | 기준가격 적용일 | 환매대금 지급일 |
|---------|----------|----------|
| 17시 이전 | 4영업일 | 7영업일 |
| 17시 경과후 | 5영업일 | 8영업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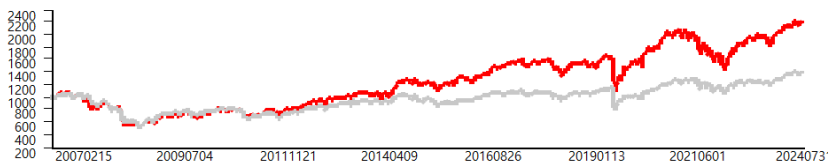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 | | | | | |
|---|---|---|---|---|---|
| 1 | 2 | 3 | 4 | 5 | 6 |
|---|---|---|---|---|---|

펀드 운용 성과

| | 누적수익률 | | | | | | | 설정이후 |
|---------|-------|-------|-------|--------|--------|--------|--------|---------|
| |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 |
| 운용펀드 | 1.85% | 4.21% | 7.85% | 10.87% | 33.77% | 9.89% | 44.64% | 120.03% |
| 클래스 A | 1.72% | 3.82% | 7.02% | 9.15% | 29.76% | 4.90% | 33.91% | 58.51% |
| 클래스 A-E | 1.77% | 3.97% | 7.34% | 9.81% | 31.28% | 6.79% | 37.93% | 81.34% |
| 클래스 C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 클래스 C-E | 1.72% | 3.82% | 7.03% | 9.17% | 29.79% | 4.93% | 33.95% | 33.74% |
| 클래스 C5 | 1.72% | 3.82% | 7.02% | 9.15% | 29.76% | 4.91% | 33.93% | 124.42% |
| 클래스 S | 1.78% | 4.01% | 7.42% | 9.97% | 31.66% | 7.26% | 38.95% | 90.60% |
| 벤치마크 | 0.05% | 0.41% | 5.56% | 8.39% | 19.09% | 11.01% | 27.62% | 36.70% |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출처: AITAS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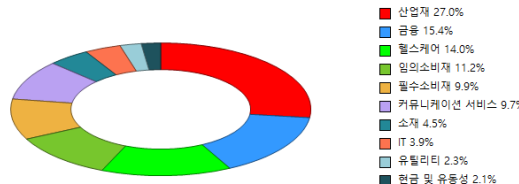
— 운용펀드기준가 — BM기준가

자산 구성 현황 (2024년 07월말 기준, 모투자신탁 기준)

<전체>



<자산배분현황> - 피투자펀드 기준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4년 07월말, 피투자펀드 기준)

| 종목명 | 비중(%) |
|--------------------------|-------|
| NOVO NORDISK A/S | 7.1 |
| AIB GROUP PLC | 4.8 |
| SCHNEIDER ELECTRIC SE | 4.6 |
| SCOUT24 SE | 4.4 |
| SAP SE | 3.9 |
| RELX PLC | 3.8 |
| UNILEVER PLC | 3.8 |
| ING GROEP NV | 3.8 |
| ALK ABELLO A/S | 3.4 |
| CTS EVENTIM AG & CO KGAA | 3.4 |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1.5675% (판매 1.1%)
- 클래스 A-E : 총 연 0.9675% (판매 0.5%)
- 클래스 C : 총 연 1.9675% (판매 1.5%)
- 클래스 C-E : 총 연 1.5675% (판매 1.1%)
- 클래스 C5 : 총 연 1.5675% (판매 1.1%)
- 클래스 S : 총 연 0.8175% (판매 0.35%)

(공통사항)

운용 0.42%, 신탁 0.035%, 사무관리0.012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납입금액의 1.2% 이내
- 클래스A-E 납입금액의 0.6% 이내
- 클래스C/C-F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7월 유럽 증시는 상승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헬스케어, 유틸리티, 부동산 업종 순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며, IT, 임의소비재 업종 순으로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습니다. 7월 유로존 제조업 PMI는 전월과 동일한 45.8을 기록하면서 부진이 이어졌으며, 서비스 PMI도 51.9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7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2.6%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7월 ECB는 통화정책회의에서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하였으며, 향후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금리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최근 유로존의 물가상승 압력의 완화로 ECB는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미 연준보다 먼저 정책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경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ECB는 통화정책 전환여부 및 추가 금리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며, 이는 향후 유럽 증시의 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펀드에서는 매력적인 가격에 탄탄한 펀더멘털을 지니고 있는 기업들에 장기간 투자하고자 하며, 심층적인 리서치에 기반한 상황식 투자접근법을 사용하여 종목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빠른 실적, 판매 증가가 아닌, 희소가치를 보유하거나 시장 내 경쟁기업들 대비 더 높은 경쟁력과 안정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가치 성장에 초점을 둘 예정입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